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사회 변화에 앞서가는 조직으로 인큐베이팅 역할 다할 것”

“We will prepare for the next 100 years and fulfill our incubation role as an organization that takes a proactive approach to social change.”

정용교 대표이사 · 건축사
Jeong, Yongkyo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부문

Q. 올해 설계부문에서 첨단설계부문이 분리됐는데요. 설계부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 올해 CM과 첨단 설계가 분가했지만, 나머지는 설계 부문에 남아 있기에 기존에 정림건축이 강점을 보였던 설계 부분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레거시(Legacy) 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시각에서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고민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 고객의 시각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발점이 고객과 시장에 있다고 보고, 레거시와 첨단 설계 부문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Q. 조직 개편 후 어떻게 프로젝트를 향상·발전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관점을 변화시켜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설계 부문이 분할됐지만, 더 나아가 비즈니스 유닛(BU)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이전에는 정림이 어떤 작품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고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고객 시장에서의 관점을 확대하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식할지부터 고려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정림을 찾았지만, 이제는 BU 리더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을 직접 찾아가며, 시장과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림의 BU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식별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해 대표가 아닌 비즈니스 리더들을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BU 대표는 수주 결정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집중적인 구조에서

대표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더 탄력적이고 젊은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헬스케어, 로지스틱스 등 각 분야별 BU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건축하려는 경우 헬스케어 BU를 통해, 물류 창고를 건축하려는 경우 로지스틱스 BU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설계 부문에서 시행 중인 주요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는 무엇인가요?

각 BU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서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도심 재개발이나 업무시설 리모델링, 복합 상업시설 전문 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부문에서는 첨단 기술과 빅테크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레거시 부문에서는 병원부터 주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 14개의 BU가 각자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짐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림건축은 1967년에 창업되어 곧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한 3세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후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설계업 자체가 유명한 건축사를 따르는 시장이라 조직을 이끌던 분이 물러나면 폐업이나 쇠락하는 사례가 흔한데, 정림은 이러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정림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세대를 넘어가는 것은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의 변화와 혁신 수준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조직이 쇠락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부문 정용교 대표이사는 조직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목표 중 하나는 차세대 정림의 리더를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BU 조직을 통해 성장한 리더를 발굴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문이 확장되고 BU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특정 분야에 뛰어난 인재를 채용해 새로운 부문을 개척할 계획도 있습니다.

Q. 정림건축의 변하지 않는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신입사원이었을 무렵 설립자였던 김정철 명예회장과 나는 대화에서 '사회적 공기', 즉 공적인 그릇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공기 안에 훌륭한 인재들이 협업해 사회적 기여가 되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림이지, 설립자라고 해서 오너가 소유권을 가진 주인의 개념이 아니라는 역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정림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정림건축의 작품은 방향성이 달라 보이지만, 어떤 큰 공적 그릇에 담겨 정림만의 것이 아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빚어낸 결과물이고, 그 과정에 작품뿐 아니라 인재들을 육성해 정림 출신의 건축인들이 많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건강한 의식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 발전을 위해 사회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본사의 김정철 홀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관련 책자나 건축 디테일집의 발간, 소규모 사무소가 BIM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 활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철 서체를 개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림정신의 발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설계가 주된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대형 교회를 설계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BU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를 다루는 전문가가 부족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직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큐베이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지속할 것이며, 새로운 BU를 개발해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림건축의 강점이자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0주년을 맞아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100주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대담 박정연 편집국장 · 글 육혜민 기자 · 사진 장영호 기자